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8월

석사학위논문

# 도시 공간의 문화적 의미

- 문화카페 '짜목짜목'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 화 학 과

정 상 연

# 도시 공간의 문화적 의미

- 문화카페 '짜목짜목'을 중심으로 -

The Cultural Meaning of Urban Space

- Focus on The Cultural Café 'SSamok SSamok' -

2019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 화 학 과

정 상 연

# 도시 공간의 문화적 의미

- 문화카페 '짜목짜목'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 이 승 권

이 논문을 문화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 화 학 과

정 상 연

## 정상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송선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승권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종완 (인)

201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	7
<b>제2장 이론적 고찰</b> .....	<b>15</b>
제1절 문화의 이해 .....	15
1. 문화의 정의 .....	15
2. 문화공간의 의미 .....	18
3. 복합문화공간의 이해 .....	22
제2절 공동체의 의의와 생활문화 .....	25
1. 공동체의 의의 .....	25
2. 생활문화의 개념 .....	28
3.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중요성 .....	32
제3절 문화마을 만들기와 협동조합 .....	36
1. 문화마을 만들기의 이해 .....	36
2. 협동조합의 정의 .....	41
3. 협동조합 마을 카페 .....	46
<b>제3장 마을카페 ‘싸목싸목’의 문화공간 만들기 사례</b> .....	<b>49</b>
제1절 풍암동의 지리적 특성 .....	49
제2절 심층 인터뷰 및 시사점 .....	51
1. 마을카페 ‘싸목싸목’ 현황과 이해 .....	51

2. ‘짜목짜목’의 공간적 의미와 목표 .....	53
3. 카페 운영과 프로그램 및 재정문제 .....	55
4.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 .....	60
제4장 결 론 .....	64
참고문헌 .....	67

## 표 목 차

[표 1] 질문지 내용 .....	5
[표 2] 인터뷰 대상자 .....	5
[표 3] 연구 흐름표 .....	6
[표 4] 마을 만들기의 목적 및 방법 .....	8
[표 5] 문화공간의 필요성 .....	10
[표 6]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필요성 .....	11
[표 7] 문화공간으로서의 카페 역할 및 필요성 .....	13
[표 8] 문화 개념의 변천 과정 .....	16
[표 9] 문화공간 이용형태 .....	19
[표 10] 공간 구분에 따른 역할 .....	20
[표 11] 복합문화공간의 역할과 기능 .....	24
[표 12] 힐러리 공동체 개념의 세 가지 구성요소(표로 재구성) .....	26
[표 13] 문화가 마을에 미치는 역동적 에너지 .....	29
[표 14] 문화행사 참여시 애로사항 .....	30
[표 15] 예술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의 문화예술 활동 .....	33
[표 16]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유형 .....	34
[표 17] 문화마을 만들기의 필요성 .....	40
[표 18] 협동조합의 정의 .....	42
[표 19] 협동조합의 7대 원칙 .....	43
[표 20]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	44
[표 2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표 .....	45
[표 22] 풍암동 인구수 .....	50
[표 23] 풍암동 면적 및 주거 형태 .....	50
[표 24] 풍암동 자생활동 단체 .....	51
[표 25] ‘싸목’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	59

## 그림 목 차

[그림 1] 복합문화공간의 연계성 .....	23
[그림 2] 풍암동 지도 .....	49
[그림 3] ‘협동조합 시민의 꿈’ 창립총회 .....	51
[그림 4] 시민과 함께하는 조합원의 날 .....	54
[그림 5] 독서토론회 .....	56
[그림 6] 아트플라워 강좌 .....	56
[그림 7] 동요교실 .....	57
[그림 8] 클래식기타 배우기 .....	57
[그림 9]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	57
[그림 10] 마을학당 .....	57
[그림 11] 특별한 음악회 이음 .....	58

## ABSTRACT

### The Cultural Meaning of Urban Space

– Focus on The Cultural Café 'SSamok SSamok' –

Jeong Sang Yun

Advisor : Prof. Lee Seung Kwon, Ph.D.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fter the great game of 'Alpha Go' vs 'Lee Sedol' in 2016, we were told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world is rapidly changing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phenomenon can be discussed in the cultural category where times coexist, and in the overflow of information human beings discover the true value of life.

In the middle of amazing changes, modern people ar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enjoying life culture to realize the value of life through cultural space. In particular, the village unit's living culture space is a place where residents with common ties share daily exchanges within a closer network of relationships, and the village's voluntary participation is unique.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researches on the town development project that have been accomplish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rough the support of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However,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on the self-governing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steadily carrying on the business for the villages by utilizing the effective space of the villages.

Therefore,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small village café called 'Ssamok-Ssamok' which has been operated by the residents themselves

since its establishment and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idents are creating positive energy for life culture by themselves, breaking away from the support system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by establishing cooperative cafés for the village

Second, I research that 'village café'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culture and the theoretical basis of cultural space operated by cooperative citizens' dream. so that is not a mere commercial purpose cafe, but rather a cultural issue Influence of everyday life

The living culture, which has expanded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communities, can play its role through the center of the cultural space. This space is a shared space and a social space before it is a cultural space.

Residents who are looking for a cultural space recognize their role as an activist, not the manager and the user organization, but all of them are the subjects of participation, and they are expanding the scope of activities based on the cultural space. Therefore, if small cafés and effective spaces in the town can be re-created as cultural spaces of the village by adding humanistic values in accordance with local characteristics, the village movement that is created through culture will be a wonderful place wher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become richer communication and exchanges will be transformed.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대국이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기계와 경쟁하는 한 인간에게 박수를 보내며 열광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둑기사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대결했지만, 이세돌 프로가 1승(5전 1승 4패)밖에 거두지 못했다.<sup>1)</sup> 이 사건은 우리의 관심을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요즘은 인공지능(AI)<sup>2)</sup>이라는 용어가 빠지면 시대에 뒤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상상했던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서 인지하기 시작했고, 2018년 11월 중국 저장(浙江)성에서 개막한 제5회 세계인터넷대회(WIC)에서 공개된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인공지능의 위력을 실감하였다.<sup>3)</sup> 빅 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sup>4)</sup>은 정보를 비롯한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정보와 지식이 집약된 ICT 산업을 기반으로 문화관광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중심

1) 오마이뉴스, “60전 전승 알파고, 이세돌과 대결 후 더 세졌다”, 2017.01.13.

2) 박지영(2017), 「디지털 시대의 기록물 기술과 접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7권 제4호, p.226.

인공지능을 정의할 때, 학계의 모든 문가가 동의하는 유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능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보여주는 컴퓨터화된 시스템 또는 실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거나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그 동작 범위에 따라 약인공지능(weak AI) 또는 제한적 인공지능(narrow AI)과 강인공지능(strong AI) 또는 일반적 인공지능(General A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으로 나누어진다.

3) MBC 9시 뉴스데스크, 2018.11.10.

4) 원동규 외(2016),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함의」 대한산업공학회 ie매거진, 제23권 제2호(통권 제72호), p.13.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사물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을 매개로 융합되는 것이 핵심 변화이다. 여기서의 핵심기술은 AI와 IoT라고 할 수 있으며, 시스템 측면에서는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이다.

에는 인간이 있다. 기계적 사고가 가져올 피해를 생각하면 고도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중요성은 배가된다. 알파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기호라면 시공간을 관통하는 인간의 문화는 인류 흔적을 대변하는 기호이다. 문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가 등장한 것도 기술 문명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문화적 삶에 대한 갈망이 증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존엄성은 포기할 수 없는 명제이다. 이것이 변혁의 시대에 인간 중심의 문화, 공동체 중심의 문화공간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화공간의 개념이 마을 만들기에 활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시초라고 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마을 만들기는 1991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1999년 주민자치센터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공공기관 중심의 사업 추진 등으로 정책적 혼선이 있었고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차상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자원 조달과 공간 확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적 주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공동체 모임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마다 마을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문화와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communit)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긍정적 에너지가 마을 만들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품앗동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마을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카페 ‘싸목싸목(이하 싸목)’의 사례를 통해 공간적 의미를 조사해 보고자 했다. 또한, 연구자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마을 만들기 콘텐츠와 스토리를 분석해서, ‘싸목’이 모임만을 위한 단순한 공간인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마을을 연결하는 공동체 복원의 커뮤니티 공간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싸목’의 사례 분석은 향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

기에 문화공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목’이라는 특정 지역의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하였고 부족한 점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첫째, ‘싸목’은 성공적인 협동조합 카페의 운영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싸목’은 5년이라는 시간을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문화공간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싸목’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이웃을 고객으로 확보한 문화 커뮤니티센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싸목’의 성공적 운영을 보면서, 한마을에 있는 작은 카페를 활용한 문화공간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새로운 관점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단편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특정 공간에 문화적 가치를 더해 감동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작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하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우리나라의 마을에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공간, 즉 생활문화 공간이 부족하다. 특히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마을 단위의 문화공간은 다양한 범주(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극, 영상, 건축 등)의 문화예술을 수용할 만큼, 규모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예술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문화와 공간의 이해를 토대로 한 문화공간, 즉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 카페 ‘싸목’이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가진 지역 문화 운동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되는 모습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이 공간의 문화적 의미를 파악해서 공동체의 커뮤니티(Community) 공간, 혹은 제3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론적 고찰과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sup>5)</sup>

이론적 고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논문자료를 검토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문화의 이해를 비롯한 문화공간과 협동조합, 마을 만들기를 연구하였다. 전반적으로 국내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단행본과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공동체가 만들어 가는 문화마을 만들기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카페를 만든 조합원 2인과 카페를 위탁 운영하는 매니저 1인, 그리고 ‘싸목’을 알고 있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마을 주민 3인을 포함해 총 6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조사의 목적과 주요 인터뷰 내용을 핸드폰 문자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었다. 인터뷰 조사는 2019년 1월에 2주간에 걸쳐 방문 인터뷰로 시행하였고, 각 인터뷰는 2회에 걸쳐 2시간씩 실시하였다. 또한, 시작 전 녹음기를 통한 녹음 여부를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질문은 반(半) 구조화된 내용으로 진행하였고 질문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고 인터뷰 대상자는 표 2와 같다. 이상의 연구방법으로 시도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제1장에서는 본연구의 배경을 기술하였다.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등을 열거하고 연구 흐름을 정리하였으며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들을 살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문화와 문화공간의 의미, 복합문화공간이 갖는 문화적 확장성과 영향 등을 연구하고 공동체의 의미와 생활문화의 개념을 비롯하여 문화마을 만들기와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제3장에서는 풍암동의 지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싸목’의 현황, ‘싸목’의 공간적 의미, ‘싸목’의 역할, 카페 운영과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카페가 단순한 상업 목적이 아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동시에 마을 공동체를 위한

5) 신승수(2012), 『공공을 그리다』, 시공문화사, p.105. 재인용.

제3의 공간이란 다양한 사용자들의 개별적 요구에 각각 응답하기 위해 여러 개의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특정 공간 안에 서로 다른 행위를 함께 담을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어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공간을 공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공간을 점유하는 여러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성에 있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문화 운동과 비전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카페가 갖는 사회적 역할과 의미,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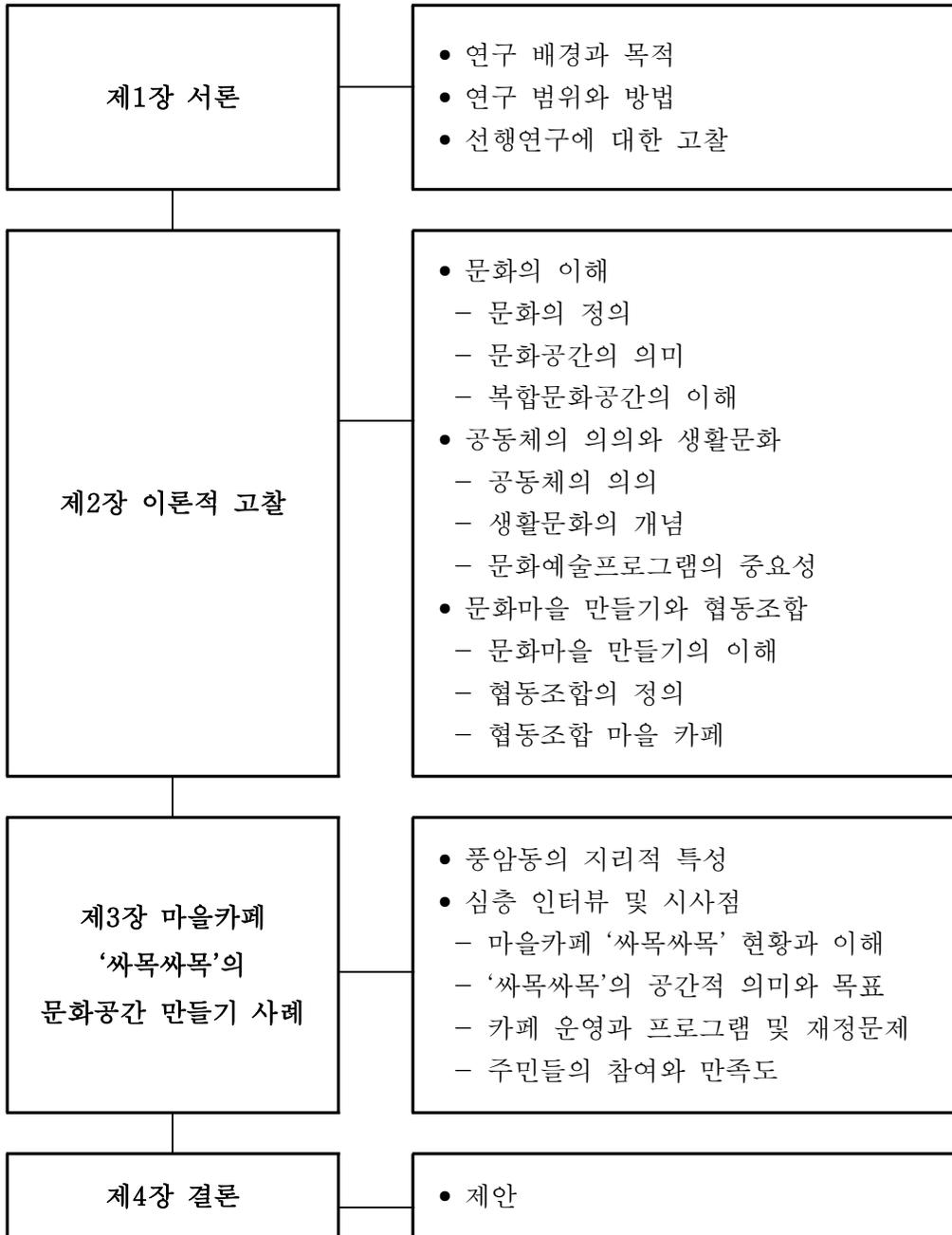
표 1. 질문지 내용

연번	내 용	비고
1	협동조합 카페 ‘싸목싸목’은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조합원
2	‘싸목싸목’의 공간적 의미와 목표는?	
3	매니저의 역할과 ‘싸목싸목’을 통해 하고 싶은 일?	매니저
4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5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 하고 있는가?	
6	협동조합 카페 ‘싸목싸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마을주민
7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8	이 공간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9	불편사항이나 시정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표 2. 인터뷰 대상자

연번	면접대상자	성별	연령대	직 업
1	조합원1	여	50대 중반	조합원(의사)
2	조합원2	남	50대 초반	조합원(교직)
3	매니저	남	60대 초반	카페 위탁운영자(주부)
4	주민1	여	40대 중반	마을주민(주부)
5	주민2	여	30대 초반	마을주민(자영업)
6	주민3	남	20대 후반	마을주민(취준생)

표 3. 연구 흐름표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위와 같다.

###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 만들기는 마을 주민을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을 카페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지역성, 공간성을 토대로 문화공간인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제3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인지하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활동, 참여자의 생각 등을 분석하여 본 논문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의 역할을 파악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싸목’의 문화공간의 역할,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중요성 등을 통해서 마을 카페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이끌어갈 때 사업에 대한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올바른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의 차원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선화는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의 사례 분석’에서,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며, 마을 공동체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주민자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는 지속가능성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공공지원이나 관련 기관의 협력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 해결의 주체는 변함없이 마을 주민들이다.<sup>6)</sup>

2) 박수현은 성남문화재단에서 시행한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연구를 통해 물리적이고 획일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참여를 통한 공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더 크게 이바지한다고 하였다. 마을 만들기의 목적이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있어야 공동체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6) 신선화(2017), ‘마을 만들기의 주민 주체와 공동체 활동에 관한 연구: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p.2.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의 삶과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자(체)가 있어야 한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지역을 위한 배려와 봉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마침내 공동체의 가치에 공감하게 된다. 과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서로 의지하며 공동체를 위한 나눔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sup>7)</sup>

3) 최종환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공공성 확보와 마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학교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sup>8)</sup>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표3과 같다.

표 4. 마을 만들기의 목적 및 방법

연구자	마을 만들기 목적	방법
신선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본 주체의 역할과 마을 공동체 역량 및 주민자치 실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공공지원과 각 기관의 협력 및 전문가의 네트워크 활성화 뒷받침
박수현	주민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강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자(체)가 있어야 하고 서로 배움과 나눔이 있어야 가능함
최종환	주민자치실현과 삶의 질 개선 및 사회공공성과 마을 공동체 의식 형성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개선 및 마을 전문가와 활동가가 필요

마을 만들기는 궁극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역량을 높여서 주민자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마을 공동체라는 커뮤니티(Community)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마을주민들이고, 이들을 결속시키는 매개체가 마을 문화공간이며 이곳에서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인 것이다. 그러나 마을 문화공간을 통한

7) 박수현(2013), ‘문화공동체 사업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남 우리동네 문화 공동체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p.117.

8) 최종환(2018),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 p.2.

공동체 의식의 확산 측면에서 보면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협력기관과 전문가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재정의 지속적인 지원은 지역 문화공간의 활성화와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공간이 갖는 의미와 문화공간의 역할 등을 연구한 자료들을 살펴봤다.

1) 이원영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CULTURAT 제안’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비용과 인적 자원이 투입되는 대형 문화공간보다 주민들의 생활권에 위치한 지역 문화시설이 필요하며 언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9)</sup>

2) 남두옥은, ‘충무아트홀 사례’를 통해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은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면서 스스로 예술적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문화적 갈증을 메워주는 복합공간, 즉 열린 공간이라고 하였다. 문화공간이 육체적 활동을 넘어서 정신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의미이다.<sup>10)</sup>

3) 김경민은 ‘한국의 도시지역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지역마다 자발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지역 문화공간은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하고 공동체를 연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도시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생활 문화공간들이 공동체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공동체 운동의 에너지와 공간의 기능 및 역할을 연구했다.<sup>11)</sup>

결론적으로 마을 문화공간은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소통의 장소이며 문화적 향유의 공간, 마을의 대소사(大小事)가 논의되는 사랑방과 같은 곳이다. 마을 주민들에게 이러한 공간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필요성 측면에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9) 이원영(2010),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CULTURAT’제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 P.3.

10) 남두옥(2009), ‘복합문화 예술공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충무아트홀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p.8.

11) 김경민(2013), ‘한국의 도시지역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자발적 소규모 공동체 공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 p.5.

표 5. 문화공간의 필요성

연구자	필요성
이원영	공평하고 공정한 문화향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크고 화려한 공간보다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소규모 문화공간의 개발이 필요하다.
남두옥	복합문화 예술 공간은 참여하고 즐기면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열린 공간이며 활발하게 정신 활동이 이뤄지는 곳
김경민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공동체 활동의 연계성과 소규모 문화공간의 에너지 및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과에 주목하게 됨

셋째,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연구한 내용을 살펴 보았다. 마을 문화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contents)이며,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는 문화적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다룬 콘텐츠를 중심으로 연구한 세 사람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1) 윤다솜은, ‘마을 만들기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마을 만들기에서 문화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떤 형식이든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이 화합하고 상호부조의 관계망을 형성하며, 나아가 다른 마을과의 연계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2)</sup>

2) 나문은 ‘문화예술을 활용해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방안을 연구’ 했는데,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과 주민들의 행복감을 고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을 만들기 요소이며,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마을에서는 구성원들이 활력이 넘치고, 일상생활에서 상부상조의 공동체성과 행복감을 느끼며, 노동의 고단함을 잊고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다.<sup>13)</sup>

12) 윤다솜(2012), ‘마을만들기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 p.26.

13) 나문(2017), ‘문화예술을 활용한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p.28.

3) 김동례는 ‘문화예술 활동이 마을 만들기에 미치는 만족도 연구’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는 문화예술을 활용해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하나로 모으고 각기 다른 요소들을 공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의 소속감과 공동체 정신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sup>14)</sup>

문화가 중심이 되는 문화마을 만들기에는 여러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용한 문화마을 만들기 운동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가 잘 조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선택이며 지속가능성 차원의 공간과 지원의 확보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 주민들의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며 마을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더욱 잘 알게 된다면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마을 공동체의 구성에 새로운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필요성

연구자	필요성
윤다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주민들의 관계망 형성과 화합으로 다른 마을과도 큰 의미의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다.
나 문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마을은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상부상조의 공동체성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며 노동의 고단함을 덜어 준다.
김동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문화예술 체험 활동과 관람 활동이 개인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 성장에 영향을 주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소속감과 공동체 정신을 갖게 함.

14) 김동례(2018),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와 문화예술활동이 마을만들기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p.23.

넷째, 마을에 있는 카페가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어떤 기능을 하며, 시민과의 관계와 공간의 역할 등을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1) 이묘희는, ‘커피하우스 공간의 문화성 연구’를 통해 커피하우스는 공공의 공간일 뿐 아니라 시민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여가와 취미 활동의 공간이며 여러 형태의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라 했다. 오늘날 카페나 커피하우스에 사람들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등, 카페가 갤러리와 공연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카페가 일반적인 문화 시설로 인지되고 있는 경우이다.<sup>15)</sup> 이는 카페나 커피하우스가 단순하게 커피나 차(茶)를 판매하는 소비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감성을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2) 이원영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CULTURAT’에서 카페를 겸하고 있는 문화공간들이 소규모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일차적으로 상업공간과 문화공간을 접목하여 각종 공연, 전시, 연주 등을 수용하고 현대소비사회의 특징인 다원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시켜 대중의 문화 욕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인위적인 결합으로 잘못된 소비를 유도할 상업공간에 문화적 생명력을 투입해서, 도시를 활성화하고 공간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sup>16)</sup>

3) 윤지희는 ‘문화공간으로써 현대 카페에 나타난 프로그램 구성 및 공간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카페는 사람들의 삶에서 오랜 세월 문화공간으로 존재해 왔으며, 현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운영하는 카페들이 등장하였다. 게다가 카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다원화된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sup>17)</sup>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15) 이묘희(2014), ‘커피하우스 공간의 문화성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p.144.  
 16) 이원영(2010),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CULTURAT’제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 p.43.  
 17) 윤지희(2013), ‘문화공간으로써 현대 카페에 나타난 프로그램 구성 및 공간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 p.101.

표 7. 문화공간으로서의 카페 역할 및 필요성

연구자	필요성
이묘희	복합문화공간은 공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및 주민들의 여가, 취미 활동의 장소이며 오락과 휴식이 공존하는 장소 또한 예술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예술품들을 시각, 청각, 등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문화 시설물 또는 공간
이원영	상업공간과 문화공간의 복합화라는 특성과 문화공간으로서 각종 공연, 전시, 연주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대중의 문화공간의 선택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의 공간에도 문화적 생명력을 투입해서 도시의 활성화와 공간의 문화 수준을 향상함.
윤지희	카페는 이미 문화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카페들이 여러 곳이 있고 앞으로는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복합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함

마을 단위 문화공간에서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이 갖는 장점은 주민들의 취향을 파악하여 프로그램과 생활문화를 접목하고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마을 공동체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양한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라 할지라도 다양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마을 단위의 문화공간이 갖는 의미, 그리고 문화공간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인식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마을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화합과 인적 관계망 형성을 비롯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개인의 잠재된 창조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극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성장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넷째, 마을에서 주민들의 여가와 취미 활동 장소로 활용되는 카페의 공간적 의미와 문화공간의 복합적 특성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문화행사가 마을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마을 카페 ‘싸목’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는 점과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기능을 뛰어넘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생활문화 공간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심도 있게 고찰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장 이론적 고찰

### 제1절 문화의 이해

#### 1. 문화의 정의

요즘 주변에서 문화(culture)라는 단어를 쓰는 빈도가 높아졌다.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콘텐츠, 문화교류, 문화가 있는 날 등, 수없이 많은 어휘가 문화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문화라는 말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문화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광범위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 1921~1988)는 “문화는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서너 개 단어들 중 하나이다.”<sup>18)</sup> 라고 했다. 1952년, 문화 인류학자인 크로버(A. L. Kroeber)와 클라크 혼(C. Kluck hohn)은 문화(culture)에 대한 개념을 수집했었는데, 그 결과 무려 175개에 달하는 정의가 있는 것을 밝혀냈다. 유네스코에서도 문화에 대해 정의를 했는데, 많은 학자들의 학설과 논의를 종합하여, “이것은 또한 이전 정의에 또 다른 하나의 정의를 추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가 갖는 다원성과 다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처럼 문화는 시대의 사고와 문화행위자, 즉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단어나 한 가지 표현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화에 관한 연구들이 학파에 따라 상이한 것만은 아니다. 어떤 이론을 따르든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요소들이 있다. 이를 문화의 공통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요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 존 스토리(2017),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경문사, p.16.

19) 장진희(2008),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이미지 향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p.18. 재인용.

첫째, 다양성은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양식이나 전략적 판단과 관계없이 세상에는 많은 문화가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문화는 앞선 세대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발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고 문화로 승화시켜 후대에 전수 한다.

셋째, 문화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갖는다. 문화적 전승은 공식화된 교육뿐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특별한 학문적 교육이 없어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후대에 대물림 되는 것이다. 이를 문화 DNA(Meme)이라고 한다.

넷째, 문화의 사회성과 더불어 역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정적인 성취뿐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sup>20)</sup>

이처럼 문화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생성이 되고 있으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화는 공간을 채우는 시간의 퇴적물이기 때문이다. 문화 개념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sup>21)</sup>

표 8. 문화 개념의 변천 과정

정 의	주요시기	문화의 개념
어원적 정의	봉건제	토지를 경작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문명론적 정의	18세기	정신적, 심미적 발전의 일반과정
예술 교양론적 정의	19세기	지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의 산물이나 실천
생활 양식론적 정의	20세기	한 인간이나 시대 혹은 집단의 특정 생활양식
의미 체계론적 정의	20세기 후반	사회질서의 전달, 재생산, 체험, 탐구 등의 의미 체계

결국,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방식(Way of life)을 의미한다. 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개인마다 살아

20) 신국원(2001), 「문화란 무엇인가?」, 학술저널 신학지남사, 2001년 가을호(통권 제268호), pp.352~358. 참조.

21) 이무용(2005), 『공간의 문화 정치학: 공간, 그곳에서 생각하고 놀고, 싸우고, 만들기』, 논형, p.365. 재구성.

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떤 일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다.<sup>22)</sup>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문화 인류학자 타일러(Edward B. Tyler, 1832~1917)는 ‘문화를 문명과 같은 것으로 보고,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습,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라고 하였다.<sup>23)</sup> 이처럼 문화는 인간의 생활양식 전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는 유물(遺物)이나 유적(遺蹟)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는 예술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세련됨이나 우아함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는 지역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유체물들로 문화상품과 같은 의미다.

넷째, 문화는 생활 습관 및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가, 자동차,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비롯한 각종 규칙과 예의범절을 말한다.

다섯째, 문화는 철학과 종교를 비롯한 예술 등, 인류의 정신적 가치를 의미한다.<sup>24)</sup>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변형될 수 있지만, 본질적 개념은 바뀌지 않는다. 문화는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문화의 궤적(軌跡)은 시간과 공간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따라서 문화는 삶의 궤적과 함께 쌓여간다. 따라서 문화는 우리 시대의 가치이며 정체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22) 김승현 외(2011), 『사회과학: 형성, 발전, 현대이론』, 박영사, p.296.

23) 정철현(2004), 『문화 정책론』,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p.15. 참조.

24) 박혜림(2015), ‘문화공간으로서 카페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p.3. 재인용.

## 2. 문화공간의 의미

인간은 공간을 만들어 살아왔고 공간을 만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에서 인간이 축조한 공간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인류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도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간의 관계망으로 구성된 도시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다시 말해 도시의 공간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형성되지만,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변화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공간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공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생성된다. 인간과 분리되거나 인간으로부터 배제된 공간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간이 아니다.<sup>25)</sup>

공간은 비워진 곳이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곳이다. 사람은 공간 구성의 실존적 주체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가면서 삶을 영위해 간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채울 수 있는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결국 문화일 수밖에 없다. 문화(文化)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듯이 문화공간(文化空間)의 개념도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문화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실현되는 장소로 인식되어 진다. 즉 문화공간은 문화를 있게 하고 보여주는 장소적 개념이 강하다.<sup>26)</sup> 따라서 장소로서의 공간은 이미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공 개념의 장소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상호교류하면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해 나간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곳, 즉 지역에서 문화적 공공성을 가지고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곳을 마을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문화공간은 연극을 보거나 영화 등을 관람하는 등 특정 분야의 공연장으로 인식된다. 즉 공연문화는 일상적인 문화와 구별되면서 세종문화예술회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일정한 공간만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탈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특정 공간에 한정해서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람들은 최근 들어 문화공간을 특별한 공간이

25) 김경민(2013), ‘한국의 도시지역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자발적 소규모 공동체 공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 p.35.

26) 남두옥(2009), ‘복합문화 예술공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충무아트홀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p.7.

아닌 일상생활에서 서로가 공유하는 제3의 공간으로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문화공간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찾아가는 생활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아래는 문화소비자의 문화공간 이용 형태를 나타내는 표이다.<sup>27)</sup>

표 9. 문화공간 이용형태

유형	내 용
문화소비의 형태	- 다양한 욕구 충족과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 가시적, 경제적, 확실성을 벗어나 예술 공간 조성 -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서비스 등 첨단 정보제공 - 전자 및 모바일 화폐를 이용하는 회원제도 시행
문화 활동 유형	- 시간과 기회비용에 따른 편익 - 다양한 형태의 연관성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설 이용
여가활동 유형	- 교통 혼잡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시설 부족 및 입지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
문화소비	-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창작 및 정보지식 공유 - 새로운 문화가치 창조와 문화 소비 유도

위의 표가 나타내 주듯이, 주민들은 문화공간을 이용할 때 다양한 유형의 문화공간을 찾는다. 이들이 찾는 문화공간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공간은 시대와 시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됐지만 결국 사회 안에서 문화와 같이 발전하고 있다.

둘째, 문화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용하지만, 지역과 조화된 공간만의 특성이 형성된다. 궁극적으로 지역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셋째, 문화공간은 다양한 물리적 요소와 의미가 결합해서 장소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이용하면서 공동체의 특성이 장소성과 결합하면 특정한 장소가 된다.<sup>28)</sup>

27) 박혜림(2015), '문화공간으로서 카페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p.11. 재구성.

넷째, 마을 단위 문화공간은 예술의 창의성을 매개로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풍성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다섯째, 지역 문화공간의 사용 주체는 지역주민이다. 마을에 있는 문화공간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주민이 소통하는 공적 개념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서로 협력해서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고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공동체의 가치를 계승해 간다.

문화공간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의미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방식을 문화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의 문화 환경과 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지역민의 창의성을 증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sup>30)</sup> 이런 관점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 문화공간의 역할을 구분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10. 공간 구분에 따른 역할

1. 공연을 시연하는 공간
<p>일반적 공연장은 공연이 실연되는 극장으로 연극,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음악회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p> <p>마을에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들을 통해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p>
2. 시각예술 공간과 전시 공간
<p>단순 그림만 전시하는 1차원적인 공간으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술간의 경계를 지우고 영화상영을 비롯한 시각적 퍼포먼스가 결합한 미디어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채울 수 있다.</p>

28) 장은지(2014), '문화생태계 관점으로 본 문화매개공간의 개념 및 역할 변화',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 p.45.

29) 이덕진(2013), '유효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p.52.

30) 송영호(2006),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박사, p.3.

<p>3. 교육 및 자료 보관과 생산하는 공간</p> <p>주민들이나 필요에 의해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호기심이나 사회적 담론을 토론하는 지적 장소의 역할과 시민사회단체나 마을의 자생단체들이 세미나나 회의 및 독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p>
<p>4. 휴식과 교류의 장소 커뮤니티 공간</p> <p>문화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자유로운 공간이다. 음식을 나누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서로 친교 하며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일정 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해 가는 공간으로 인식하면 된다.</p>

이상의 논의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화공간은 마을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교육적 가치와 기능을 전달하고 올바른 예술적 가치를 인식시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게다가 마을 문화공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연극, 무용, 미술, 오페라, 콘서트 등의 전문적인 작품을 실연하는 전문예술 공간이 아니라 공연, 전시, 도서관, 교육, 회의 등 다양한 생활문화 행위를 할 수 있는 복합적 성격의 다목적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즈음 마을 단위에서는 주민들 곁에 있는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지만 도시 생활은 여전히 삭막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공간은 인간의 풍성한 삶을 견인하는 상징공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도시의 품격을 이야기할 때, 해당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공간이나 문화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중요시 한다.<sup>31)</sup> 결국, 품격 있는 도시, 품격 있는 도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공간의 확보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의 세기인 21C에 들어서서 문화공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치열한 현대인의 삶 속에 들어온 문화공간은 오아시스와 같은 도시의 휴식공간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31) 이덕진(2013), ‘유효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p.52.

### 3. 복합문화공간의 이해

현대사회는 문화기호를 만들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시연하기 위해 크고 화려한 문화공간을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즉 생활의 일부가 된 공간, 정서적 공허함을 달래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형편이다. 물론 마을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해서 서로간의 교류는 하고 있으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하므로 다양성 차원에서 문화예술 장르에 따른 공연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마을의 복합문화공간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마을 플랫폼이다. 따라서 마을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은 단순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휴식 공간, 사회적 이슈를 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 공간, 서로 간의 기쁨과 슬픔을 더하고 나누는 사랑방 등,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마을 단위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예술 창작자와 수용자, 즉 마을 사람들을 포함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이 되었고, 도심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보완하는 공간이라는 인식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다.<sup>32)</sup> 이 공간은 도심 한가운데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진 시민문화예술회관이나 다목적 체육관 같이 제도적 문화공간과 차별화된 주민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공간이 마을 단위 공동체의 공유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사랑방 같은 공간, 마을의 전통과 이야기를 전수하기도 하고 남녀노소가 어울려 음식을 나누어 먹던 추억의 공간이다. 사랑방이야말로 정보도 교환하고 놀이도 즐기면서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공유했던 곳이다.<sup>33)</sup>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이 공간은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의 기능을 하는 플랫폼 공간이 되는 것이다. 현재 지역과 마을에서 옛날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이선영(2010), ‘복합문화공간 일상화를 위한 Cafe 계획안: 창작 레지던스 개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 p.2.

33) 유민영(2004), 『도서출판 연극과 인간』, 도서출판 연극과 인간, p.72.

첫째, 마을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둘째, 생활예술 즉 취미 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의 가치를 영위(營爲)하게 한다.  
 셋째,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험실이 되고 있다.  
 넷째,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마을 구성원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문화적 향유를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마을 단위 복합문화공간이 갖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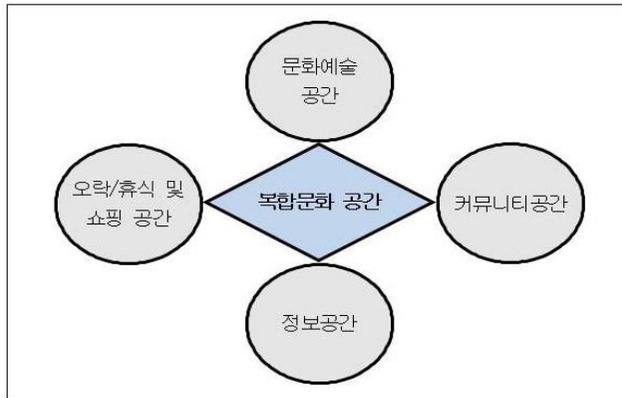


그림 1. 복합문화공간의 연계성

문화 환경의 관점에서 개별 도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도시의 정체성(identity)을 드러내는 문화 환경을 갖  
 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체성이란 그 도시만이 가진 개성을 말  
 한다. 다른 하나는 문화공간(장소)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  
 서 누릴 수 있는 문화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sup>35)</sup> 따라서 마을에 있는  
 유희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생각해야 한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그곳에서 문화적 향유가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34) 남두옥(2009), '복합문화 예술공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충무아트홀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p.11. 재구성.

35) 김철수(2006), 『동시 공간의 이해』, 기문당, p.180.

삶과 지역사회 공동체에 긍정적 에너지를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인간은 감성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간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 또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곳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로만 봐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문화공간은 시민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면서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발전소와 같은 곳이다. 따라서 단순한 시설을 물리적으로 조성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contents)에 적합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sup>36)</sup>

복합문화공간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서로 연결해 각 주체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복합체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마을 복합문화공간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개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생활예술을 지향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마을 단위 복합문화공간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37)</sup>

표 11. 복합문화공간의 역할과 기능

측면	역할과 기능
사회 교육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 시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li> <li>- 교육과 학습 및 참여의 장소</li> <li>- 지역 고유문화를 형성</li> <li>- 문화 명소로서의 경제의 활성화</li> </ul>
정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의 소통과 휴식, 놀이, 여가 선용의 장.</li> </ul>
문화예술 발전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작가 발굴</li> <li>- 창작의 기회와 활성화 지원</li> <li>- 예술인들의 문화정보 교류의 장</li> <li>- 새로운 미술과 공연예술 활성화 선도</li> <li>- 체계적 유통구조의 정립</li> </ul>

36) 이무용(2005), 『공간의 문화 정치학: 공간, 그곳에서 생각하고 놀고, 싸우고, 만들기』, 논형, p.131.

37) 이덕진(2013), '유효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p.174. 재인용.

마을 단위 복합문화공간은 예술의 대중화와 문화 활동의 생활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민의 공동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간극을 좁히고 시대적 트렌드(trend)를 반영하는 주민의 사랑방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복합문화공간의 예술적 의미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 공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문화예술은 시행자의 자기만족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감성을 공유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공유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 주민들이 만들고자 하는 복합문화공간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민주적 커뮤니티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마을을 만들고 본인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제2절 공동체의 의의와 생활문화

### 1. 공동체의 의의

공동체라는 용어는 14세기에 영어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communis’에서 기원한 라틴어 ‘communitas’를 어원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Community)는 환경을 공유하고 관심사를 같이 갖는 사회집단을 말한다.<sup>38)</sup> 따라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개인이 아닌 타인을 먼저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즉 공동체는 서로의 노력과 배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38) 박수현(2013), ‘문화공동체 사업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남 우리동네 문화 공동체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p.11.

첫째,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둘째, 이웃과 공유하는 일상생활에서 자존감과 주체성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는 ‘인간다움’을 기본으로 구성된다. 공동체의 개념 정의는 지금까지 여러 사회학자에 의해 논해졌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학자는 힐러리(G. A. Hillery, 1955)의 공동체 이론이다. 힐러리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지리적 공간과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의 연대를 이야기 한다. 전통적인 공동체는 위의 세 가지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고,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이한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전통적 개념을 토대로 현대사회의 공동체를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기본적인 개념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힐러리’의 공동체 개념을 세 가지 구성요소 중심으로 한 표이다.<sup>39)</sup>

표 12. 힐러리 공동체 개념의 세 가지 구성요소(표로 재구성)

구 분	내 용
지리적 영역	삶의 터전으로 한 일정 지역을 말한다. 이는 공동체가 가능케 하는 기본적 요소이자 물리적, 상황적 조건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잠재적인 구조적 틀을 의미한다.
공동의 연대	정서적인 동료의식과 소속감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지리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공동체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economic terms)만큼이나 다양한 의미가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체만이 희망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복원을 주장한다. 공동체는 합의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공동체의 구성요소는

39) 신선화(2017), ‘마을 만들기의 주민 주체와 공동체 활동에 관한 연구: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pp.27~28. 재구성.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속감, 애정, 긍지, 충성심 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구성원 상호 간에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구성원은 공동체와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하고 공동체의 여러 모임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구성원들의 행동이 품격이 있어야 하며, 공동체 내의 갈등 조정 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넷째, 공동체의 규범을 지키는 규범의식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 그리고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sup>40)</sup>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이상적인 집단으로 정의한다면, 성숙한 사회집단, 시민사회는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 사전적 의미의 성숙(成熟)은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다다름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성숙한 단계에 다다랐는지? 여전히 미숙한 단계에 있는지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성숙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과 보편적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다. 성숙한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회는 나이와 직업, 성별, 출신, 자본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지역공동체를 지리적 공간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지역공동체라는 말에는 ‘지역’이라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관계 개념이 들어가 있다. 어떤 시대나 상황에서도 지역공동체는 항상 공간과 함께 공존해 왔고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 영위되어온 것이다.<sup>41)</sup>

일반적으로 공동체라는 뜻에는 ‘지역’, ‘사회’, ‘주민’, ‘마을’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집단의 구성단위를 의미한다. 서구의 공동체는 공동(common)과 공동자치제(communal)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의 생각이나 뜻이 통한다는 의사

40) 김병준(2018), 『도시재생시대』, 도서출판 씨아이알, p.106.

41) 아라카와 가즈히사, 조승미 옮김, 『초슬로사회』, ㈜이퍼블릭, p.417.

소통 즉 ‘communication’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첫째, 같은 관심사와 비슷한 의식을 배경으로 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집단
- 둘째, 특정 사회 공간에서 공통 가치와 비슷한 정체성을 함께 나누는 구성체
- 셋째, 같은 생활공간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
- 넷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공동사회
- 다섯째, 공통적 사회 관념과 생활양식 및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구성체

따라서 공동체는 공동의 관심사(믿음, 환경, 주거, 기호, 생활)를 공유하며 구성원들의 동질성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사회의 본질은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시작한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같이 산다는 의미로 도시는 ‘대우주 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대우주 세계란 경제, 정치, 인구,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서로 다른 분야들이 연계된 수많은 종류의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곳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계다. 그곳은 사람들 모두가 동의한 법규를 지키고 서로 가치관을 준수하며 연대책임을 지며 산다.<sup>42)</sup>

## 2. 생활문화의 개념

생활문화 진흥법 2조 2항에는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 또는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sup>43)</sup> 즉 생활문화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문화 활동을 뜻하기 때문에 마을 활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이 공연예술이나 영화관람 등에서 관객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받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 문화예술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42) 테오도르 폴 김(2011), 『도시 클리닉』, 도시의 창, p.216.

43) 생활문화진흥법(제1장 2조 2항), 법률 제12354호,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문화 권력을 행사하고 형성하는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문화적 평등과 사회적 공존을 통해 시민들이 주체가 된 문화예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44)</sup> 사람들은 일상에서 느끼고 체감하는 문화로,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힘을 충전한다. 따라서 문화생활은 개인 각자 취향에 따라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문화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을 비롯한 마을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 간다. 생활문화가 마을에서 어떠한 역동적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겠다.<sup>45)</sup>

표 13. 문화가 마을에 미치는 역동적 에너지

1	공동체성(community) 복원
	그것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탄력성(resilience)이다. 공동 생활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유적(類的) 역사의 연속성을 매개하는 문화예술의 초(超)개인주의적 역할은 사회공동체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2	일상생활의 조명
	거대담론과 사회시스템에 의해 억압되고 소외된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재조명하는 수단으로서 예술적 역할은 매우 독점적이다. 다른 수단과 달리 문화예술은 감각적 공진화(共進化)를 촉발한다.
3	프로슈머(prosumer)적 주체의 확산
	도시생활에서 문화예술 행위의 참여는 단순히 생산자 개념으로만 정리되지 않는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작품을 생산해내기도 하지만 스스로 향유하고 소비하는 소비자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도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법령<sup>46)</sup>과 정책들을 만들

44) 광정연 외(2017), 『문화민주주의: 독일어권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글로벌콘텐츠, p.18.

45) 티엘엔지니어링 외(2017), 『도시 美를 입히다』, 도서출판 호밀밭, p.24~26. 요약해서 표로 구성.

46) 문화기본법 시행(제2조 기본이념), 제15061호,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수혜를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각 개인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다음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하는데 느끼는 몇 가지 애로사항들을 조사해 봤다. 47)

표 14. 문화행사 참여시 애로사항

통계 분류 1	통계 분류 2	2016년									
		사례수	높은 비용	시간 부족	관심있는 프로그램 없음	교통 불편	편의 시설 불편	관련 정보 부족	함께할 사람 없음	근처에 시설 없음	기타
전체	소계	7,171	18.3	28.0	21.2	5.8	4.3	15.2	1.9	5.0	0.3
성별	남성	3,386	16.9	32.6	22.4	4.7	3.7	14.3	1.3	3.9	0.3
	여성	3,785	19.7	23.7	20.2	6.9	4.8	16.0	2.4	5.9	0.3
연령	15~ 19세	591	26.4	26.6	20.6	4.7	4.7	12.3	0.3	4.5	-
	20대	1,058	24.1	23.2	22.8	4.9	5.1	14.8	0.6	4.4	0.1
	30대	1,220	17.4	35.8	19.9	4.7	3.3	12.4	0.5	5.8	0.2
	40대	1,332	15.8	35.1	20.5	4.6	4.6	13.9	0.7	4.7	0.2
	50대	1,270	16.6	32.8	20.4	5.7	4.1	13.7	1.7	4.5	0.6
	60대	852	15.7	21.1	23.4	7.2	4.4	19.4	3.8	4.8	0.2
	70대 이상	848	15.9	9.3	21.9	11.2	4.1	23.1	7.5	6.1	1.0
17개 시도	서울	853	15.6	28.1	25.8	5.1	3.9	15.8	1.7	3.8	0.2
	부산	412	15.2	25.6	27.8	4.6	1.8	15.0	3.0	7.1	-
	대구	284	10.9	27.8	13.5	2.6	4.1	33.8	2.6	4.7	-
	인천	315	20.8	10.1	16.6	2.3	2.0	45.5	-	2.7	-
	대전	365	30.9	21.8	20.7	7.0	2.3	13.1	1.3	2.7	0.2
	광주	489	16.2	41.9	13.9	3.8	7.6	13.7	1.3	1.2	0.4
	울산	274	17.2	22.6	29.9	8.4	3.1	14.7	2.6	1.6	-

47) 문화행사 참여시 애로사항 통계청 자료, www.kostat.go.kr

위 도표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비용이 비싸다.
- 2) 시간이 부족하다.
- 3)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다.
- 4) 교통이 불편하다.
- 5)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 6)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 7) 함께할 사람이 없다.
- 8) 근처에 시설이 없다고 한다.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sup>48)</sup> 라고 했지만, 표 14에서와 같이 직, 간접적인 이유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들어 국민소득 증대와 100세 시대의 기대감, 주 5일 근무 시행에 따른 변화로 문화와 여가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 활동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존의 문화시설들도 기능·공간·운영방식 등에서 한계점을 노출하면서 시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sup>49)</sup> 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넓은 의미의 문화를 생각하기 보다는 접근이 용이하면서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대중문화, 즉 미술작품을 감상한다거나 음악을 듣고 연주하는 행위를 비롯해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는 등의 문화 활동이 주민들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온다는 의미이다.

주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거대한 문화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누리는 친근감 있는 문화, 즉 생활문화를 갈구하는 것이다. 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고급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받고자 하는 질적 욕

48)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http://www.mcst.go.kr)

49) 민인철(2017), 「주민 주체적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광주전남연구원, 일반논단 06호, p.6.

구보다는 일상적인 생활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할 기회를 요구한다.<sup>50)</sup> 다시 말해 주민들이 생각하는 생활문화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소박한 내용의 참여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며 복장이나 특별한 준비물 없이도 옆집에 놀러 가듯 가볍게 즐기는 생활문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를 보급한다는 자치단체들의 행위적 문화서비스는 지역민들의 체감도와는 거리가 있으며 생활문화와도 동떨어진 서비스가 될 때가 많다. 기존의 문화예술은 전문가나 예술가들의 전유물로 인식 되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 자본이 민주화되고 대중문화가 확산하면서 고정된 프레임(frame)의 경계가 무너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문화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생활문화는 그 예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예술이 아닌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아실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예술을 말한다.<sup>51)</sup>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풍요로운 경제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물질적 풍요로움과 고도의 성장만이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물질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하며 이웃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가 훨씬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시대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lifestyle)은 변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생활방식이나 행동 양식, 예술 등을 포함한 모든 정신 활동을 문화라 지칭할 때 문화적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 생활문화가 개인과 공동체의 질적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 3.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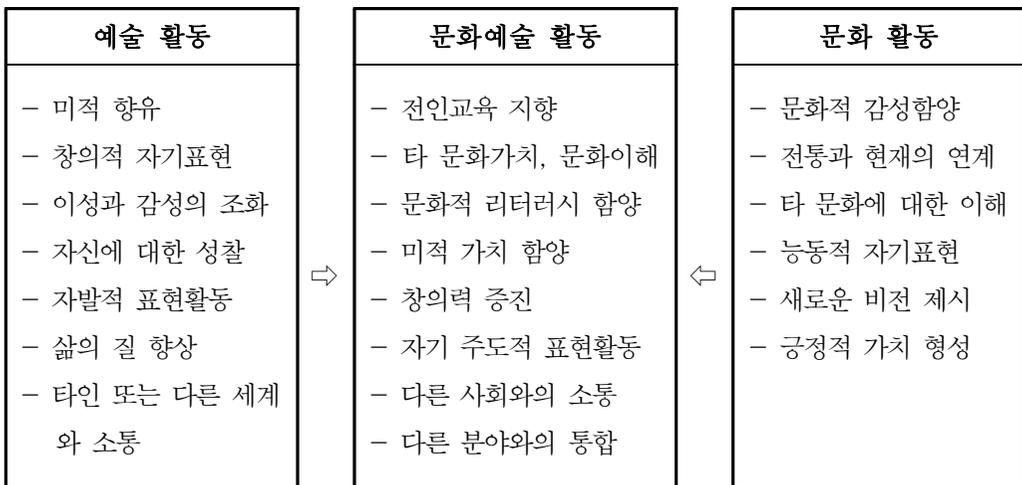
문화예술이란 문화(文化)와 예술(藝術)의 합성어이다. 문화라는 것은 지적(知的)이거나 심미적인(審美的) 활동을 말하고 예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표현과 소통이며 자아 정체감과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아실현, 전인적 성장 등이다. 문화예술과

50) 최보윤(2017), ‘문화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산과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p.56. 재인용.

51) 박혜림(2015), ‘문화공간으로서 카페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p.21.

관련된 체험 활동은 개인의 잠재적 재능을 자극해서 개인의 자기 성장에 영향을 준다. 또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소재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문화 공동체 정신이 생성될 수도 있다. 문화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문화예술 활동은 문화 활동과 예술 활동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복합어이며,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와 예술의 상호 유기적 관계로 정의되는 문화예술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sup>52)</sup>

표 15. 예술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의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진흥법은 제1장 2조 1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을 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sup>53)</sup>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생활문화의 가치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평가되고 재생하는 것이 문화적 마을 만들기이다. 따라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아름다운 마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평을 열어준다.

52) 김동례(2018),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와 문화예술 활동이 마을 만들기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pp.23~24. 요약. 재구성.

53) 문화예술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이웃과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문화 운동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것이 문화예술이 가진 힘이며 저력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은 외적인 조건, 즉 건물, 쇼핑타운, 공공건물 등을 갖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부 구성요소를 이어주는 관계의 망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 안에는 감동을 만들어 내는 긍정적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음악을 비롯해 무용과 미술 등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넓혀 나간다. 마을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보면, 마을 축제를 비롯한 행사 프로그램들인데 마을에서 생성되는 프로그램들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 둘째, 이웃과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
- 셋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참여를 통해서 문화적 향유가 가능하고,
- 넷째, 직접 기획하고 수정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의 유형을 나타내는 표이다.<sup>54)</sup>

표 16.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유형

분류	프로그램 유형
음악	악기연주 활동, 합창(노래)모임, 밴드 활동, 음악회, 오케스트라
미술	전시회, 작품 만들기, 미술체험, 마을벽화
연극	연극모임, 뮤지컬 모임, 공연
무용(춤)	전통춤 배우기, 청소년 댄스 모임, 사교댄스, 에어로빅
영화	영화상영과 관람
교육	독서토론, 글쓰기 교육, 예술 및 인문학 교육, 워크숍
축제	마을 축제, 음악축제, 소단위 동아리 축제, 연극축제, 카니발

54) 윤다솜(2012), '마을 만들기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 경영대학원, 석사, p.26. 요약.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며 주민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주민과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 따라서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 시간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며 투명한 운영과 진정성 있는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내외의 인적 자원들에 대한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첫째, 스스로 즐기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림이나 음악회를 통해서 느끼는 정서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즐거움을 기꺼이 나누어야 한다. 삶(사회)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구성되고, 그 관계는 자발적인 소통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적인 권리가 아닌 사회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 결속이 되면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다. 이를 통해서 공공(公共)의 의미를 지닌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sup>55)</sup>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 문화와 예술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이 개인과 집단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취미 생활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 2) 예술인들과 교류를 통해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 3) 소통을 통해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 4) 협동을 통해 화합과 자율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
- 5) 생활문화 활성화로 인해 문화적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 6) 서로의 재능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통해 봉사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55) 최준란(2017), 『문화공간과 도시재생: 흥대앞 책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pp.33~35. 요약.

7)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일체감과 소속감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모두를 위한 공공성에 있다. 문화예술의 공공성이란 문화를 인간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문화와 예술의 창작물에 접근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음악을 예로 든다면,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대중들과 연결하는 것이 문화(예술)적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예술의 가치에는 개인적인 가치와 공익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가치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공성이 담겨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sup>56)</sup>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자본의 투자만으로 만들어지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체험 및 경험 그리고 창작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가치는 객관적 참여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어야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한 감동이 상품에 전이될 때 문화예술콘텐츠는 성공하게 된다. 마을 단위 문화예술 공간은 거대 자본이 운용하는 문화센터의 개념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 마을 운동이라는 지향성을 갖는 마을 사랑방 이상의 의미와 가치로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마을 주민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고양해 나간다면 사회적 의미는 물론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3절 문화마을 만들기와 협동조합

#### 1. 문화마을 만들기의 이해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은 일본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변용한 용어로 지역 공간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디자인해 가는 활동을 이야기한다. 마을은 국가를

56) 최준란(2017), 『문화공간과 도시재생: 흥대앞 책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p.36. 참조.

구성하는 단위로 마을이 확대되어 고을이 되고 고을이 모여 국가가 된다. 마을의 어원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 한자에서는 마을을 뜻하는 촌(村)이 규칙적으로 나무가 심어진 공간을 의미하였다.<sup>57)</sup>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의 마을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장소를 말한다. 이를 토대로 오늘날의 마을은 공유와 협동, 이해와 나눔이 있는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지칭한다.<sup>58)</sup> 마을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 ‘우리 동네’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만들어진다. 따라서 마을은 주민들의 관계 속에서 그 범위가 결정되며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은 일정 범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 정체성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본적 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sup>59)</sup>

마을은 거주자들의 삶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유기적인 공간이며 다양한 사람들과 활동들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성과 위주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경우에, 대부분 공공시설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단순 목적의 마을 만들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에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구성원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참여와 문화가 중심이 되는 마을 만들기를 시도해야 한다. 문화마을은 주민들에 소통의 장이며 누구나 문화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를 표방해야 한다. 문화마을 만들기는 관계하는 전문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적 사고와 삶을 통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매 순간 지속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사람과 공동체의 풍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한 과정이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발현 창구이기 때문이다<sup>60)</sup>

주민주도형 문화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주민이 쉽게 문제에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문화적 삶을 누리는 공공적 차원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운동이다. 문화마을 만들기에 있어 지역 주민의 참여 필요

57) 김기홍(2014), 『마을의 재발견』, 울림, p.90.

58) 현용수(2015), 『공동체 경제 마을 이야기』, 홍익미래경영연구원, p.20.

59) 윤다솜(2012), ‘마을 만들기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 p.6.

60) 김기호 외(2014), 『우리, 마을 만들기』, 나무도시, p.11.

성에 대한 전제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마을을 만들어 가는 정책과 방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자기의 생활환경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다양한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사회 구조에서 문화적 요소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의미이다.

셋째, 주민참여는 주민과 마을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의 장으로 기능을 한다. 참여 활동은 지방자치에서 개개인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획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문화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주민참여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sup>61)</sup>과 같이 지역의 이기적 사고에 치우치지 않도록 참여 의식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마을 만들기로 이어진다. 어느 시대에는 문화를 고급문화와 하류 문화로 나누어 문화 인격을 저해하는 때도 있었지만 문화 그 자체는 평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특히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는 주민들 스스로 문화생활의 긍정성을 찾고 조화로운 인격을 토대로 문화적 차이를 좁혀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행복 가치는 물론이고 이웃과 함께하는 긍정적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질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sup>62)</sup>와 맞물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의 문화는 지역

61)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

지역 이기주의의 하나. 산업 폐기물이나 쓰레기 따위의 수용·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반대하는 현상을 이른다.

62) 정찬권(2015),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p.36.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다. 여기서 스토리는 어떤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를 말하고, 텔링은 매체에 맞는 표현방법을 말한다. 즉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를 매체의 특성에 맞게 표현하는 것으로, 내용과 기술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

내의 특정한 활동, 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고유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며, 마을 내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유형의 문화이다. 그 지역에 내재된 가치가 재현된 형태의 문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그 지역만의 특성과 잠재된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문화마을이란 해당 마을에서 만들어진 오래된 정체성을 표현한다. 그 정체성이란 마을 내에서 관계들의 표현이다. 이런 관계들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마을의 오래된 구조를 포함한 물리적 요소와 오랜 관습이나 제도 등을 포함한다. 즉 마을을 내재된 요소가 그 마을의 정체성이다.<sup>63)</sup>

지역에 내재된 여러 문화 요소들이 주민들의 관계 형성과 맞물려 정체성을 드러낼 때 문화마을의 형태는 빠르게 만들어진다. 문화마을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문화예술, 즉 음악, 미술, 체육, 영화, 건축 등에 마을의 고유 가치가 더해져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마을은 주민들의 정체성과 마을의 고유문화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사회, 즉 문화마을에는 항상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마을의 고유성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문화마을은 스스로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 자정력(自淨力)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도 일상에서 문화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문화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문화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때로는 행정기관의 지원에 따른 행위로 비칠 때도 있다. 일부 사업에서는 편의성과 획일적 사고의 미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편적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마을의 정체성과 특색을 소멸시키고 결국에는 일회성 사업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흥행과 성공을 목적으로 시작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문화를 통해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더불어 행복한 주민공동체를 만드는 일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마을은 항상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하며 마을 구성원의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마을은 항상 열려있다. 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자연스러운 순환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문화마을에서 산다는 것은 문화적 삶의 구조성 즉 인격의 성숙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63) 박수현(2013), ‘문화공동체 사업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p.34.

문화마을의 조건은 문화적 여건을 균형 있게 갖추고 문화생활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좁은 뜻으로 말하면, 문화마을이란 일정한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문화 활동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가 많아지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을 갖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넓게 보면, 문화마을이란 주민들이 다 풍요롭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골고루 갖춘 문화적 마을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sup>64)</sup>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마을 만들기의 필요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해 보았다.<sup>65)</sup>

표 17. 문화마을 만들기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첫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
둘째	지역에 있어 창조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방안을 모색
셋째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 서로에 대한 회복의 장을 마련

첫째, 문화마을을 만드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실천으로 우리 삶의 과정이면서 여러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 가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실행가능성(feasibility)이다. 이는 지역주민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웃과의 네트워크를 촉진시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문화예술의 창조자가 될 수 있는 문화발신지로 마을을 가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의 환경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마을 만들기에서 어메니티(amenity) 개념이 급부상하고 있다. 어메니티는 사람이 어떤 사물을 포함한 환경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쾌적성을 의미한다. 문화마을의 어메니티는 자연, 건축물, 기후, 사회, 주민특성, 개인의 감성과 같은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고 볼

64) 이홍재(2006), 『문화 정책』, 논형, pp.249~250. 재구성.

65) 송영호(2006),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 p.22. 재구성.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자원의 고유한 가치를 활용한 융합시스템 구축은 문화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본적인 요소일 것이다.

셋째,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형성되면서 약화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을 내 관계망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실천적 참여와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sup>66)</sup>

결국, 문화마을은 인문학적 견지에서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도시, 쾌적한 마을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지만, 실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을 예술의 단면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 의미 즉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표면에 드러나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 때문에 문화마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활용해 문화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는데 있다.

문화마을을 만들고 문화마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는 마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이며 주민들이 나누는 문화적 공감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어메니티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통과 통합을 이끌어 내고 문화예술에 내재되어 있는 심미적 가치를 확산시켜 마을 주민들의 삶을 창조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 2.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경제주체로 주목받았고 국제연합(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66) 송영호(2006),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 pp.22~23. 요약.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협동조합(協同組合, cooperative society)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협동조합의 정의

국어사전	경제적 약자들 즉 소비자와 농민, 중소기업자 등이 사업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단체
백과사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인과 일반 소비자들이 상부상조(相扶相助) 정신으로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물자 등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을 통해 영위하는 조직단체
미국 농무성	이용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하는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에 대한 배분을 하는 사업체. 즉 협동조합은 출자를 통해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사업체
국제협동조합연맹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100주년을 기념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선언했다. 이는 협동조합이란 사업체의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통해 서로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지역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이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체로서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목적과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 첫째, 영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상호부조에 있다.
- 둘째, 임의(任意)로 설립하고 조합원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다.
- 셋째, 조합원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공평한 의결권(議決權)을 가진다.
- 넷째,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분배함에 있어서는 출자액에 대해 많고 작음이 없이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이용량에 따라서 실시한다.<sup>67)</sup>

협동조합 특징은 물질적 자본에 앞서 사람을 중요시 하는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우선으로 하고 영리 추구보다는 실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ICA<sup>68)</sup>는 1995년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sup>69)</sup>

표 19. 협동조합의 7대 원칙(재구성)

연번	내 용
1	자발적이고 개방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이면서 기업이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 인종, 정치, 사회를 비롯한 종교의 차별 없이 열려있다.
2	조합원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제를 한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주주 회사와는 달리 협동조합은 어떤 단계에서도 1인 1표를 행사하는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3	조합원은 경제적 참여를 한다.
	조합원 상호가 똑같은 규모가 아니라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협동조합의 자본에 참여하면서 그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4	자율성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서 직접 통제되고 있는 자율적이고 자조(自助, self-help)적인 조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5	교육과 훈련 및 홍보에 힘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선출된 대표자를 비롯해 경영관리자, 조합 직원들을 상대로 적정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6	협동조합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활동은 본인들의 조직을 포함해 지방, 지역과 국가, 세계 차원에서 서로 협력, 협동하며 조합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 시키는 노력을 한다.

67) 최병복(2013), 『협동조합 기본법』, 법문사, pp.14~15. 요약.

68)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www.ica.coop

ICA는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 94개국의 268개 협동조합에 소속하고 있는 10억명 이상의 조합원('13. 8월 기준)을 대표하고 있고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69) 김현대 외(2017), 『협동조합, 참 좋다』, 푸른지식, pp.32~33. 재구성.

7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
	맨체스터 총회에서 새로운 원칙이 추가되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ICA는 협동조합의 개념을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욕구와 문화적 욕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자율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출자, 이용, 운영의 주체이다. 또한, ICA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여섯 가지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sup>70)</sup>

표 20.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연번	기본적 가치	윤리적 가치
1	자조(self-help)	정직(honesty)
2	자기 책임(self-responsibility)	공개(openness)
3	민주주의(democracy)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4	평등(equality)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 others)
5	공정(equity)	
6	연대(solidarity)	

이처럼 협동조합은 문화예술이 갖는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마을 운동의 긍정적 지향성에 협동과 조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더해 민주적이면서 자생적인 마을 운동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은 마을 공동체 운동에서 활동가들에게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마을 주민)를 잇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제공한다. 자본주의적 사고에서 물질적 만족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행복지수<sup>71)</sup>가 궁핍해지면 삶의 질적 척도에 문제가

70) 최병록(2013), 『협동조합 기본법』, 법문사, pp.36~27. 재구성.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마을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정신적 가치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 계층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정책 방향표다.<sup>72)</sup>

표 2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표

3대 기본방향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과 부작용을 최소화
	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의 기본적 원칙
	다른 제도와 조화를 통한 유기적인 정책효과 재고
4대 지원방향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교육과 홍보 강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제도 발전을 추진

협동조합은 지역 자립형 마을 만들기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마을 재생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긍정적 시각의 마을 재생을 통해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또는 문화공간을 활용한 협동조합이 늘어나면 마을의 문화와 예술의 향유성이 높아지고 마을이 처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에서도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영향을 줄 것이다.

71) KOSTAT 통계플러스(2018년 가을호), [www.kdi.re.kr](http://www.kdi.re.kr)

세계 주요 국가 중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행복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였으며, 우리나라는 156개국 중 57위로 나타났다.

72) 김용한 외(2013),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실무』, 도서출판 지식공감, p.21.

### 3. 협동조합 마을 카페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정의가 다양화되면서 향유의 공간 즉 복합기능을 갖는 문화공간으로 카페를 많이 찾는다. 카페의 발생 자체가 복합적인 공간 개념의 특성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도시인의 휴식공간 또는 소통과 토론, 문화향유의 복합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카페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문화공간으로써 축적해온 역할은 현대사회에서도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를 통해 마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에서 카페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카페는 조합원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을 카페가 갖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는 단순한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카페는 16세기 이스탄불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도 단순히 커피를 즐기는 장소가 아닌 정서적 안정과 육체적인 쉼을 필요할 때 찾는 장소였으며, 17세기 초 유럽으로 건너간 카페는 사람들이 만나는 친교의 장소였다. 당시 유럽에서 카페는 남성들에게 해방구와 같은 곳으로 동료의식과 정보 교류는 물론 여론을 형성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의 교류와 원활한 소통의 공간으로 음악, 미술, 철학을 비롯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과 정치적 담론이 열리는 소통의 공간으로 1715년 런던에는 무려 2천여 개의 커피하우스가 있었다. 이처럼 영국은 커피에 대한 문화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었고 서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정치와 문화를 토론하는 특별한 만남의 공간이었다.<sup>73)</sup>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전문점을 이르는 카페(café)는 프랑스어로 커피를 뜻하는 말이다. 커피의 시작은 에티오피아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qahwa'로 불리면서 널리 사랑받았다. 커피 문화가 이슬람권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긴 했으나, 오늘날의 카페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74)</sup> 이처럼 사고와 만남의 장으로 카페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프랑스의 살롱<sup>75)</sup>문화가 있었기 때

73) 박혜림(2015), '문화공간으로서 카페의 기능과 프로그램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 p.26. 재인용.

74) 김혜인(2018), '카페 공간의 사용화(私用化)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p.23.

75) 최승일(2014), 『커피컬처』, 밥북, p.124.

문이다.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살롱에는 당시 지식인들과 귀족을 비롯한 성직자와 예술인들까지 일정 구성원들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귀족적 생활양식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살롱은 계몽주의자들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해졌고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이후 혁명과 함께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살롱문화가 점차 쇠퇴하고 카페문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19세기의 카페는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유로운 공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으로 카페 ‘르프로코프’의 손님 대부분은 지적인 시민들이었고, 문학 애호가들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이처럼 소통과 사교의 장이었던 살롱의 문화적 기능은 카페문화에도 이어졌다.<sup>76)</sup> 각 유럽 사회마다 다양한 향과 맛의 커피가 등장하고 카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탄들이 마시는 음료로 규정되거나, 커피하우스에 대한 출입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지배 세력들에게 반하는 음료로 비치기도 하였지만 결국 커피하우스와 카페는 그러한 지배 세력들까지 흡수하며 점차 유럽 사회에 자리 잡았다.<sup>77)</sup> 카페는 시대와 함께 변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단지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취미 활동과 여가활동을 하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때론 특정 목적이 없어도 각자의 공간 활용과 휴식을 위한 장소로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카페는 도시의 시간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trend)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날 커피는 세계인들에게 중요한 기호 식품이며 역사적으로 축적된 강한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다. 커피는 동일한 뜻이 있음에도 ‘카페’, ‘커피숍’, ‘커피하우스’, ‘다방’ 등 나라와 민족 그리고 도시에 따라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초창기 ‘다방’이라는 명칭에서 현재 ‘커피숍’ 또는 ‘카페’로 불리고 있다.

한국에는 커피가 조선 말기에 들어왔는데 고종 때, 손탁호텔의 1층에 있었던 ‘정동구락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다방이었다. 아관파천<sup>78)</sup>때

Salon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Sala’이며, 프랑스어로 거실을 뜻한다.

76) 박혜림(2015), ‘문화공간으로서 카페의 기능과 프로그램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 p.27.

77) 하정미(2012), ‘한국 카페의 공간 생산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 p.7. 표 참조.

78) 다음 백과사전 [www.daum.net](http://www.daum.net)

1896년 2월 11일 친러 세력과 러시아 공사가 공모하여 비밀리에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 서양의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던 일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커피 문화가 전해지게 되었다. 일본강점기의 다방은 호텔문화와 함께 유입되었는데 당시 충무로에서 명동까지를 일본사람들이 ‘작은 동경(東京)’이라 지칭할 만큼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때 명동은 다방의 거리라 불렸다.<sup>79)</sup> 당시에 다방은 유럽과 같이 일부 특권층과 사회 지도층 및 문화예술인들이 찾는 공간으로 친목과 교제는 물론 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해 늘 새로운 뉴스를 생산하는 장소였다. 다방은 사회성과 예술성을 띤 공적 공간으로 예술과 문학을 논하고 전시회나 작곡발표회와 같은 문화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번성했던 다방문화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잠시 주춤했다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주 고객층이 일반 대중으로 변하고 시설도 고급화, 대형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방문화는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연령층 구분 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거리의 응접실과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특히 통기타를 중심으로 청춘 문화를 대표하는 분출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 커피는 음용(飲用) 문화의 보편적 취향을 대표한다. 카페를 찾는 이용자들은 커피를 마시는 장소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로 인지하고 공간적 의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인지와 감성이 더해져 특별한 정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각 장소마다 카페의 고유 특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음식을 포함해 여가활동은 물론 엔터테인먼트와 취미 활동까지 해결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마을에 위치한 카페들은 주민들의 욕구 충족과 공간 활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복합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중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활동을 경험하고 문화 소비와 생산의 효율성을 찾아가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

로 옮긴 사진.

79) 하정미(2012), ‘한국 카페의 공간 생산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p.8.

## 제3장 마을카페 ‘싸목싸목’의 문화공간 만들기 사례

### 제1절 풍암동의 지리적 특성



풍암동(楓岩洞)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포함된 18개의 동(주민자치센터) 중 하나이며 금당산을 중심으로 크게 신암(新岩)마을과 운리(雲里) 마을로 나누어진다. 풍암동의 남쪽에는 304m의 금당산이 자리하고 있다. 서쪽에는 중앙공원과 염주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등이 조성되어 문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다, 신암마을은 금당산의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신암이라고 했으며 500년 전 김제 김씨가 광주로 옮겨와 터를 잡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운리 마을은 마을 전체가 마치 구름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음성 박씨가 처음 들어와 터를 잡았다고 전해진다. 풍암동이 현대적 모습으로 변화한 것은 1991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로, 현재는 대규모 아파트 밀집 지역이 되어 있다. 총 4.83km<sup>2</sup>의 면적에 34개동 4만 2천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sup>80)</sup> 풍암동의 인구수와 주거 형태는 다음과 같다.<sup>81)</sup>

80)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www.seogu.gwangju.kr](http://www.seogu.gwangju.kr)

표 22. 풍암동 인구수

14,534세대 40,235명(남 19,671 / 여 20,564)

구분	총계	0~19	20~40	41~60	61~80	81~	65세 이상		
							계	남	여
명	40,235	11,115	10,553	13,691	3,945	661	3,184	1,325	1,859

표 23. 풍암동 면적 및 주거 형태

면적	주거 형태
- 47.78km <sup>2</sup> (서구전체)	- 아파트: 20개소 10,979세대
- 4.83km <sup>2</sup> (서구의 10.2%)	- 단독주택(원룸, 빌라 포함) 939개소 3,692세대

풍암동의 자연환경은 풍암호수를 비롯해서 금당산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월드컵경기장, 생태학습도서관, 풍암생활체육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대다수 주민들이 문화체육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하지만 마을 세대의 75%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맞벌이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많다. ‘짜목’이 위치한 마을은 원룸 밀집 지역으로, 인적이 드물고 이웃 간의 교류가 없는 지역이다. 원룸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방식으로 인해 이웃과 소통이나 주민자치 등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 경제 환경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불안 요인들을 인식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해야 할 의제를 발굴하는 등,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이 여러 종류의 자생 단체로 모여져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데 공동 노력하고 있다.

81) 풍암동 주민자치회(2017), 『풍암골, 마을 미래비전』, 마을 미래비전 추진위원회, p.67.

표 24. 풍암동 자생활동 단체

연번	단체명	대표자	회원 수	중요활동
1	협) 시민의꿈	신환승	24명	- 생명 평화 운동
2	풍암인권마을	박종평	30명	- 마을 인권교육
3	금당산지킴이	문상희	10명	- 금당산 생태학교 운영
4	아이숲도서관	문상희	110명	-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5	자원봉사캠프	서광순	12명	- 손뜨개 재능기부 및 나눔활동
6	풍암농사학림	신수호	28명	- 농사 공동체 활동
7	줍마 리봉스	하수정	7명	-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 제2절 심층 인터뷰 및 시사점

### 1. 마을카페 ‘짜목짜목’의 현황과 이해

‘짜목’은 협동조합 ‘시민의 꿈’에서 운영하는 마을 카페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된 ‘갈릴리 153’이라는 카페를 풍암동에서 사는 13명의 주민이 뜻을 모아 협동조합 카페로 탈바꿈시켰다.



그림 3. 협동조합 시민의 꿈 창립총회(출처: ‘짜목’ 조합원 네이버 밴드)

‘갈릴리 153’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로 품질 좋은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다. 누구든지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마을 사랑방 같은 곳이었지만 처음부터 열린 공간은 아니었다.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 첫째, 카페를 중심으로 원룸들이 많았고,
- 둘째, 특별한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 셋째, 한 쪽 방향은 대로에 접해 있고, 승용차가 겨우 지나가는 골목에 위치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한낮에도 유동인구가 적었고, 저녁이면 술을 판매하는 가게나 편의점에 출입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당연히 카페 경영이 어려워졌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곳에 자주 들렀던 주민들이 ‘갈릴리 153’을 마을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논의를 통해 2014년 2월 9일 창립총회를 거쳐 협동조합 ‘시민의 꿈’을 설립하였다. 이후 상호를 ‘짜목짜목’으로 개칭(改稱)하여 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카페 ‘짜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문화마을 만들기의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짜목’의 관련자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는 조합원들을 인터뷰하였는데 ‘짜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가 충분히 이야기가 할 수 있도록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고 인터뷰 도중에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궁금한 사항들은 추가로 질문을 하였다.<sup>82)</sup>

82) 2019년 1월 15일 14시, 장소: 짜목짜목 홀

“처음 시작은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원대한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단지 갈릴리 153이라는 공간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주 커피를 마셨던 친구와 이 공간을 살릴 방법들을 찾던 중에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조합원1)

“처음에 저도 조합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난감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곳에서 편하게 놀다가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요즘 동네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커피숍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거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렀던 이곳은 참 편하더라고요. 아마 처음 조합을 시작했던 모든 분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분들과 갈릴리 153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설레기도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조합원2)

조합원 1, 2는 인터뷰를 통해서 ‘싸목’이 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친구나 이웃의 권유로 설립취지에 동감한 주민들이 출자를 하였고, 조합의 목적이 영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로를 믿는 참여의 자세, 즉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서로를 믿고 신뢰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조합원의 구성에 성별이나 직업의 차별은 없었지만 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적 지향점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기존 조합원의 100% 동의를 얻어야 자격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 2. ‘싸목싸목’의 공간적 의미와 목표

인터뷰의 다음 목표는,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싸목’의 공간적 의미와 ‘싸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터뷰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곳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는 생활 문화공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싸목’에서 모두가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조합원2)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못 했지만 ‘싸목’과 같은 형태로 5년이란 시간 동안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운영에 대한 미숙함과 또 여러 시행착오 있었지만, 주위 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조합원1)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 모든 조합원이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는 일들이 다 다르므로 전체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공간에 대한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원들 스스로 친교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밥상 공동체를 한 달

“그 뒤 발기인을 구성하고 서로 협동조합에 관한 공부와 교육도 받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목적, 정관 등 서류작업을 마친 뒤, 드디어 2014년 2월 9일 창립총회를 통해 ‘협동조합 시민의 꿈’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 ‘싸목’은 ‘협동조합 시민의 꿈’에서 운영하는 마을 카페이고 현재는 조합원이 24명이나 됩니다. 이 조그마한 마을 카페에 주인이 24명이나 된다는 이야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합원1)

에 한 번씩 운영하면서 각자 집에 있는 김치랑 나물 등 밑반찬을 가져와서 음식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에 대한 비전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죠. 이곳 ‘싸목’은 우리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사랑방이면서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입니다. 인터넷 검색 창에 ‘싸목싸목’을 치시면 대충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파악할 수 있죠. 소문 듣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합원2)

조합원들은 ‘싸목’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으며 카페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이곳이 생활문화 공간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림 4. 시민과 함께하는 조합원의 날

조합원들이 지향하는 마을 카페는 ‘더불어 건강한 관계로 성장하는 카페 협동조합’이다. 이 공간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깨어있는 삶을 실천하고 서로를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카페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이 아닌, 건강한 먹거리와 자연 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꿈들이 연대를 통해 성장해 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회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만들고 소비하며 운영하는 마을 카페를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 2) 마을 카페를 지역 사랑방으로 만들어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소통의 공간으로 확립하고,

- 3) 청소년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멘토가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 4) 다양한 문화행사(인문학 강좌, 독서토론회, 음악회, 영화감상회, 역사 문화 탐방 등)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 5) 지역의 여러 단체(동아리)들이 모이는 장소는 물론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의 허브 역할을 하며,
- 6) 카페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협동 조합으로써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발한 ‘싸목’은 주민들과 함께 5년을 보냈다. 마을의 복합문화공간들은 주민들이 공간 활용과 운영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 지역 문화공간이 성공하려면 그 지역의 시·공간적 특성과 색깔을 담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싸목’이라는 공간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풍암동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싸목’의 성공을 견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 3. 카페 운영과 프로그램 및 재정문제

다음은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운영자를 통해서 카페 운영과 프로그램 등등, ‘싸목’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터뷰하였다. 카페 매니저는 지금까지 풍암동에서 14년 정도 살고 있었으며 ‘싸목’에 서는 2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sup>83)</sup> 매니저는 환경정리와 음료 등 먹거리를

83) 2019년 1월 18일 10시, 장소: 싸목싸목 홀

“아이들도 다 키웠고, 집에서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이런저런 취미 활동을 하다가 이곳에서 클래식기타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후 매니저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이것이 딱 내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오전 10시경에 문을 열고 또 손님이 없으면 일찍 문을 닫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 5일만 일을 하지요.”(매니저)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하고 가족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처럼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나 희망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매니저)

판매하는 일부터 마실 나온 어르신들의 말동무까지, 여러 일 들을 맡고 있었다.

“처음 프로그램으로는 독서토론과 마을학당, 플라워 아트, 동요교실, 청소년 체험 활동, 클래식기타 배우기, 까치밥 홍시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선정은 주위가 원룸촌이라는 특성을 감안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비용만 받거나 무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수자의 강사료는 다른 문화센터의 지급내용과 동일하게 책정했구요. 왜냐면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야만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거든요. 최고의 강사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모든 조합원들이 노력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참여 인원이 부족한 강의도 있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마을 구성원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매니저)



그림 5. 독서 토론회



그림 6. 아트플라워 강좌

“일단 저의 가장 큰 역할은 청소와 환경정리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필수 조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정하는 것과 이곳에서 직접 만든 마들렌과 효소로 만든 각종 차 등을 관리 판매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니저)



그림 7. 동요교실



그림 8. 클래식 기타 배우기



그림 9.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그림 10. 마을학당



그림 11. 특별한 음악회 이음

“특히 2달에 한 번씩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 이음’은 사단법인 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우리 ‘싸목’이 주관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인데 벌써 53회째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금 없이 조합원들의 힘만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마을에서 개최되는 음악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음 음악회’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음악회가 되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 좁은 공간에 관객들이 평균 50명씩 앉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무대 하고 앞사람과 거리가 1m 정도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시는 선생님들 표정과 악기 떨림까지 다 들을 수 있고요. 특이할 것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누구나 환영이죠.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어느 마을이건 나름대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타 마을이나 지자체와 구별되는 여러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싸목’에서도 풍암동만의 특색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운영자의 말을 참고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표 25. ‘싸목’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독서토론	-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생각나눔의 시간 - 월 1회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직접 도서를 선정함
마을학당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질의응답하는 시간 -전문직에서부터 동네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누구나 가능
플라워아트	- 취미반으로 운영함 - 꽃꽂이와 장식 등 품격 있는 교양강좌
동요교실	- 어린이는 물론 가족 단위 참여가 가능 - 어른들이 부르는 동요에서부터 어린이 동요까지 -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
청소년 체험	- 주변의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 활동 - 커피, 마들렌 만들기 등
클래식기타	- 취미반으로 운영 - 기초반과 중급반이 있으며 주 1회 오전에 진행
까치밥 홍시	- 늦가을 까치를 위해 홍시를 남겨두듯이 타인을 위해 미래 계산을 해 두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쿠폰제도 - 돈이 없거나 부족한 누구나 무료 이용하는 나눔 운동
특별한 음악회	- 클래식 대중화와 문화 향유를 위한 음악회 - 두 달에 1회씩 무료로 진행하는 음악회

‘싸목’의 프로그램은 ‘풍암동’이란 마을의 특색과 주민들의 성향에 맞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싸목’의 성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공간이 협소해서 한꺼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었으며 참여하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조합원들 간에 소통에 문제가 가끔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부의 튀는 행동 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회칙과 원칙이 좀 더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조금씩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운영에 대한 경제적인 것이죠. 돈인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 달 임대료와 전기, 수도세를 비롯해 제 인건비까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일단 조합원들이 월 회비를 낸 납으로 먼저 내십니다. 그리고 커피랑 음식들

을 팔고 이곳저곳에서 후원도 해주시지만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때그때 부족분을 채워가고 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예요. 하지만 나름 잘 유지되었듯이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매니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경제적인 도움은 조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 모든 지원사업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1년으로 끝맺음을 할 수 없잖아요.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서부터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수많은 서류 작업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지원사업들은 단위 사업 즉 한 가지 내용을 사업 목적으로 정해서 공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하나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까지 지장을 줄 수 없거든요. 일손도 부족하고요.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카페 ‘싸목’의 운영경비는 조합원(24명)이 기부하는 회비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은 기금이 대부분이었다. 몇 가지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적잖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목표한 만큼의 매출은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운영자가 보여준 매출원장을 보면, 4년 동안 늘 적자였으며 부족한 비용은 조합원들의 십시일 반(十匙一飯) 기부로 메우고 있었다. 당연히 운영자의 급여도 최저 임금 수준이었으나 운영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에 감사하였고 본인의 일이 마을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 4.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

과연 이 마을 카페의 주인은 누구일까? 카페의 운영 주체인 조합원과 운영자도 있지만, 주인은 바로 마을 구성원인 주민일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싸목”과 인연을 맺었고 이 공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저는 이곳의 조합원인 강00 소개로 문화프로그램 중 기타를 배우기 위해 왔었는데 저렴한 수강료가 제일 맘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동네에 있으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다른 일을 볼 때도 큰 불편함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민1)

“저는 우연히 ‘싸목’에서 눈 내리는 날 독서모임 하는 걸 보고 동네에 꼭 필요한 카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폐와 유흥’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만의 동네 골목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이후 음악회 관람도 하고 몇몇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인 일들이 많아서 자주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페이스북과 지역 신문 등을 통해서 여러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주민2)

“저는 처음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냥 좋은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있어도 그냥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주민3)

‘싸목’은 음악을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고 특히 커피나 효소차 등의 건강한 먹거리가 주민들을 이곳으로 찾아오게 하는 요소로 파악됐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상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소비자들이 모이듯이 ‘싸목’도 주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싸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했다.

“저는 우선 쌀 수강료와 가까운 거리가 ‘싸목’의 최고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동네 사람들이라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수강료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의논해서 강의료를 정하고 강사님께 드리거든요.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강사 선생님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다른 분들에 비교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주민2)

“저는 자주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악회가 있을 때는 꼭 참여해요. 음악 하시는 선생님들도 유명한 분들이 오시고 해설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재밌고 감동도 있습니다. 화려하고 큰 음악당에서 진행되는 음악회는 아니지만 나름 행복한 음악회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주민1)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2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음악회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만족하고 있었다. 끝으로 카페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써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알아봤다.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싸목’에 오면 자주 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항상 반갑고 즐거워요. ‘싸목’은 마을주민들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장입니다”(주민1)

“이곳의 장점 중 하나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와 문화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옆 테이블에 민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점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옆에 계시는 동네 분들께 얻어먹었습니다. 아직 취준생이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감사한 맘으로 순가락을 더했네요.”(주민3)

“이곳에서 안타까운 것은 공간의 협소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치껏 골목 한곳에 주차하거나 멀리 파킹을 하고 걸어서 와야 한다는 것이죠. 음악회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주차 때문에 고생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만 있어서 음료를 주문한 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주민1)

“실은 불편한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죠. 주차 문제도 그렇고, 음식이나 메뉴도 다른 카페와 비교해서 다양하질 않습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쉬는 날이 너무 많아요. 토요일도 가끔 문이 닫혀 있고, 일요일은 당연히 영업을 안 하고요. 가끔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 오고 싶을 때가 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카페라는 이유로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주민2)

현재 대한민국은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것도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 삶의 질을 고려한 환경개발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싸목’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소통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싸목’을 통해서 협동조합 카페의 성공적 운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봤다.

첫째, 문화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 적절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이다.

셋째, 마을 공동체 운동, 즉 협동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요성 인식이다.

첫 번째로, 주민들이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풍암동에 위치한 ‘싸목’은 고급아파트 지역의 외곽 원룸 층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공간으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싸목’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카페의 목적이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주민들이 공유하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모두가 참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힘으로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문화공간의 사회적 의미는 이곳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특별한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이 갖는 사회·경제적인 가치는 마을 만들기에서부터 마을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먼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마을 구성원의 문화적이며 심미적인 여가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간접적으로도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사회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거나 주민들의 교양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만 고려하여도 문화예술은 마을 만들기의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마을 공동체 운동의 중요성이다. 한동안 개발 중심의 도시건설은 도시의 외관을 바꾸는 사업이었지만 오늘날의 도시재생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개인의 삶을 고양시키고 문화와 예술을 통한 창의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도시가 기존의 무미건조한 성장 위주의 물리적 재생에서 공공성을 강조한 사람 중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도시 공간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마을은 주민들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계속 움직이는 유기체적 공간이면서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역사성과 그 안에 녹아든 삶의 궤적들을 존중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가끔 마을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마을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를 놓치는 것이다. 왜 마을이 중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마을 만들기과 공동체 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한 마을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공유 플랫폼으로써의 마을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알아가기 위함이다. 마을 운동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목표를 수정하면서 원하는 바를 하나씩 얻을 수 있다. 마을주민들이 협동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공동체 운동은 서로의 유대감을 형성할 것이고, 삶의 터전인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제고시켜 줄 것이다. 따라서 카페 ‘싸목’은 소통을 위한 마을 공동체의 사랑방이며, 인문학 강좌와 음악회 등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자본주의적 사고와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공존하기란 낯설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협동의 가치와 관계망을 형성하여 ‘싸목’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간다면 인간의 정이 더해진,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의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 제4장 결 론

카페 ‘싸목’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정 성과도 내고 있었으나 운영방식에 따른 경영, 즉 매출과 금전적 부분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현재는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얻어지는 일정 수입 등으로 당장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채투자자를 위한 자본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문화 운동과 마을 운동은 사람이 재산이고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풍요로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폐를 끼친다면 선의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거시적으로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도와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때로는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변화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지적했듯이 주차 문제나 협소한 공간에 대한 문제도 다양한 의견들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 계속적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략적 실천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에 ‘싸목’이 지속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마을에 있는 문화공간은 주민들과의 신뢰와 공공의 목적이 담보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이 있겠으나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적 아이টে을 특화해서 프로그램의 색깔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영자와 주민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 일방적인 운

영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을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운영자의 헌신과 봉사자들의 기부를 잘 활용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다. 지원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행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문화공간은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공의 목적과 성취감을 토대로 마을을 청소한다든지 나무와 꽃을 심는다든지 스스로 실천하고 만족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공익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도시개발 및 재생 사업들이 관 중심의 프로그램이었다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각자의 마을 특성을 바탕으로 천편 일률(千篇一律)적 방식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와 삶의 가치가 부합된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21세기의 화두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 등이 주(主)를 이루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자동화(HA) 시스템<sup>84)</sup>이 생활화되어 직장과 가정에서도 효율적인 알고리즘(Algorithm)<sup>85)</sup>에 익숙해졌지만, 그 중심에도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이 단순히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이며 인격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운동이 성공하려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배가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인간 중심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8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정보통신 용어사전, [www.terms.tta.or.kr](http://www.terms.tta.or.kr)

컴퓨터와 통신 및 반도체 기술을 응용하여 주택을 단순한 주거 개념만이 아닌 가정생활의 편리성, 효율성, 문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정보 기술(IT)로 자동화한 가정. PC 통신과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 정보, 일기 예보, 각종 경기, 전시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항공권, 열차표, 각종 문화행사의 입장권을 가정에서 예매할 수도 있다.

85) 매일경제 용어사전, [dic.mk.co.kr](http://dic.mk.co.kr)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말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술하면서 실행 명령어들의 순서를 의미한다. 아랍의 수학자인 알고리즘미(Al-Khowarizmi)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결과는 같아도 해결방법에 따라 실행속도나 오차·오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고리즘은 명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프로그래머들은 주로 순서도나 의사코드(pseudocode) 등을 이용하고 있다.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살 수는 없다. 특히 도시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 공간으로 구성된 도시의 영향을 직접 받으며 살아간다. 도시의 공간은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형성되지만,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 공간은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교류를 통해서 생성되고 변형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공간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는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 환경과 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역민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마을의 중요성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문화공간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더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곽정연 외2인, 『문화민주주의: 독일어권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글로벌콘텐츠, 2017  
 김기호 외11인, 『우리, 마을 만들기』, 나무도시, 2014.  
 김기홍, 『마을의 재발견』, 울림, 2014.  
 김병준, 『도시재생시대』,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8.  
 김승현 외2인, 『사회과학: 형성, 발전, 현대이론』, 박영사, 2011.  
 김용한 외1인,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실무』, 도서출판 지식공감, 2013.  
 김철수, 『도시 공간의 이해』, 기문당, 2006.  
 김현대 외2인, 『협동조합, 참 좋다』, 푸른지식, 2017.  
 신국원, 『문화란 무엇인가?』, 신학지남사, 2001.  
 신승수, 『공공을 그리다』, 시공문화사, 2012.  
 이묘희, 『커피하우스 공간의 대중문화성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공간, 그곳에서 생각하고, 놀고, 싸우고, 만들기』, 논형, 2005.  
 이홍재, 『문화정책』, 논형, 2006.  
 유민영, 『문화공간 개혁과 예술발전』, 도서출판 연극과 인간, 2004.  
 정창권,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2015.  
 정철현, 『문화정책론』, 도서출판 서울경제경영, 2004.  
 최병록, 『협동조합 기본법』, 법문사, 2013.  
 최승일, 『커피 걸쳐』, 밥북, 2015.  
 최준란, 『문화 공간과 도시 재생: 홍대앞 책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  
 대학교 지식출판원, 2017.  
 현용수, 『공동체 경제 마을 이야기』, 흥익미래 경영연구원, 2015.  
 풍암동 주민자치회, 『풍암골 마을미래비전』, 마을미래비전 추진위원회, 2017.  
 아라카와 가즈히사, 『초 솔로사회』, (주)이퍼블릭, 2018.  
 존 스토리,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경문사, 2017.  
 티엘인지니어링. 티엘갤러리, 『도시 美를 입히다』, 도서출판 호밀밭, 2017.  
 테오도르 폴 김, 『도시클리닉』, 시대의 창, 2011.

## 논문

- 김경민, '한국의 도시지역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에 대한 연구: 수도권외의 자발 소규모공동체 공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2013.
- 김동례,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와 문화예술활동이 마을 만들기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대학원, 2018.
- 김혜인, '카페 공간의 사용화(私用化)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 나문, '문화예술을 활용한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 남두옥, '복합 공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충무아트홀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 박수현, '문화공동체 사업이 공동체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남 우리 동네 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 박혜림, '문화공간으로서 카페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문화예술경영학과, 2015.
- 송영호,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2006.
- 신선화, '마을 만들기의 주민주체와 공동체 활동에 관한 연구: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2017.
- 이덕진, '유효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3.
- 이묘희, '커피하우스 공간의 대중문화성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 이선영, '복합문화공간 일상화를 위한 Cafe 계획안: 창작 레지던시 개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2010.
- 이원빈, '문화예술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12.
- 이원영,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CULTURAT 제안',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10.
- 윤다솜, '마을만들기 운영프로그램 활성화방안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12.
- 윤지희, '문화공간으로서 현대 카페에 나타난 프로그램 구성 및 공간디자인

-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13.
- 장은지, '문화생태계 관점으로 본 문화매개공간의 개념 및 역할 변화', 추계 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14.
- 장진희,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이미지 향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최보운, '문화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 최종환,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심층적 분석',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8.
- 하정미, '한국 카페의 공간 생산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언론광고학과, 2012.

## 학술지

- 민인철, 「주민 주체적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7.
- 박지영, 「디지털 시대의 기록물 기술과 접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7권 제4호, 2017.
- 원동규·이상필,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 대한산업공학회 ie매거진, 제23권 제2호(통권 제72호), 2016.

## 인터넷 자료

- 가정 자동화, 정보통신 용어사전, [www.terms.tta.or.kr](http://www.terms.tta.or.kr)
-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www.ica.coop](http://www.ica.coop)
- 남비현상,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
-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5061호, [www.mcst.go.kr](http://www.mcst.go.kr)
- 문화예술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행사 참여 시 애로사항, 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빅 데이터(Big Data), 정보통신용어사전, [terms.tta.or.kr/main.do](http://terms.tta.or.kr/main.do)
- 생활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2354호, [www.mcst.go.kr](http://www.mcst.go.kr)

싸목싸목 조합원 밴드, <http://band.us/band/55432123/album/total>  
아관파천,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34214>  
알고리즘, 매일경제 경제용어 사전, <http://dic.mk.co.kr/cp/pop/desc.php>  
오마이뉴스, “60전 전승 알파고, 이세돌과 대결 후 더 세졌다”, 보도내용, 17.01.13  
제5회 세계인터넷 대회, MBC 뉴스데스크, [www.imbc.com](http://www.imbc.com), 2018.11.10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www.seogu.gwangju.kr](http://www.seogu.gwangju.kr)  
행복지수, 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가을호에 실린 자료(Helliwell et al, World Happiness Report 2018), 통계청,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